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재정문제와 그 윤리적 방안

김명배 (숭실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 교파와 자본주의 정신
2.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뱅의 예정론
3.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

III. 한국교회 재정 현황과 그 문제점

1. 한국교회 재정현황
2. 한국교회 재정현황의 문제점

IV. 베버의 사상에서 본 한국교회 재정문제 해결의 윤리적 방안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4>

• ABSTRACT •

Financial Problems of Korean Church and it's Solution:
Focusing on Weber's Thoughts

Kim, Myung-Bae (Soongsil University)

The excessive growth centeredness of Korean church has pushed many young pastors to plant new churches and it has caused the serious financial and numerical polarization of church since the 1990s. This trend of church planting has made pastors start new churches without any appropriate measures for survival. Almost of them have failed to manage their churches financially independent, so, they have closed the churches inevitably. The social distrust of Korean church has expended seriously due to the result of this phenomenon. More seriously, the majority of Korean churches and church leaders are still focusing on the church growth and clericalism as they are ignoring the voices for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find a way to overcome this financial issue of Korean Church through the thoughts of Weber. First, this research looks around the current financial issues of Korean Church. Second, it delves into how the current financial issue of Korean Church in this capitalistic society opposes the idea of Weber's spirit of capitalism and worldly asceticism.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social ethical solution for this financial issue of Korean Church as concentrating on Weber's ascetic spirit of capitalism and his ideas of reasonable capital management.

Key words: Max Weber, Protestant, Capitalism, Korean Church, Asceticism.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선교초기 암울했던 민족의 시대에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주던 생명의 종교였다. 그리고 이제 선교 132주년을 넘어 양적으로 세계교회가 놀랄만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보도된 대형교회의 재정 불투명 문제, 교회세습의 문제, 목회자의 부도덕성과 비윤리성의 문제, 그리고 교회분쟁과 분열에 관한 소식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시작된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교회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어 가난한 교회와 부자교회라는 극단적 양극화를 낳고 있다.

일부 개척교회들은 신도시 상가에 대한 투자나 땅 투기를 통하여 교회 자리를 잡고, 몇 년 후 되파는 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성장을 도모한다. 목회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땅값 오르는 곳 고르기, 상가 위치 좋은 곳 고르기 등 부동산 업자, 공무원, 법무사 등을 통해 정보를 듣고 이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대형 교회들은 마치 재벌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인수합병 하듯이, 어려운 교회들을 합병하여 지교회로 설립하고 교세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갖가지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사유화하거나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고자 애 쓰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는 한국교회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케 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투기적 경제체제에 적응한 교회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성장을 구가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심각

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아무런 대책 없이 목회현장에 내몰린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개척으로 나아가고, 이어 자립에 실패한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지난 몇 년간 MBC와 SBS의 시사 프로그램에 의해 시도된 기독교 비판은 우리사회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 시각의 수위가 어느 정도에 까지 왔는지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교회 안에 자성과 갱신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위기를 바로 진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다수의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성장주의와 교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특히 한국교회의 재정불투명들의 해결책을 베버의 사상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즉, 베버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경영방식에 맞는 자본이용과 합리적 노동의 조직화라는 근대 자본주의정신이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교회의 재정사용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영리방식을 따라 무분별하게 어떤 규범도 갖추지 않은 채로 영리활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사상을 정리 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교회의 재정현황과 문제점,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재정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기독교 사

회윤리학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개신교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발생한 개신교의 윤리로 규정하였다. 베버의 요지는 칼뱅의 ‘예정설’에 입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직업 노동에 헌신적으로 종사함으로써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¹⁾ 그러므로 베버는 이 책에서 ‘이념이 역사에 작용하는 방식을 분명히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1. 교파와 자본주의 정신

종교개혁으로 인해 등장한 개신교는 가정생활과 공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는데,²⁾ 이로 인해 종파에 따라 직업적 분화가 형성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근대 자본가, 경영자, 상층 숙련공, 특히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은 개신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³⁾ 베버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신자들이 기술이나 상공업을 직업으로 준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입학시킨다는 것이다.”⁴⁾ 그래서 베버는 “개신교는 지배층이든 피지

1) 박성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사회비평』 19(1992), 175.

2)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18 : 막스 베버, 박종선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서울: 고려원, 1996), 39.

3) 위의 책, 37.

4) 위의 책, 41.

배충이든, 다수로든 소수로든 경제적 합리주의를 향한 특수한 경향을 가지고 있던 데 반해, 가톨릭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⁵⁾는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양 교파의 외적인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내적 특성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비세속적이고 금욕적이어서 신자들이 현세의 재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짐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로는 결코 자본주의 정신이 개신교에서만 나타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예로,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하층계급은 매우 향락적이었고 상층계급은 종교에 매우 적대적이었다. 마찬가지로 독일 개신교 신자들도 세속적 경제생활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상층계급도 종교에 거의 무관심 했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가톨릭의 비세속성이나 개신교의 세속성과 같은 애매한 관념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근대 자본주의 문화와 개신교 정신의 특징 사이의 내면적인 친화 관계 내지 상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초기 개신교가 갖고 있는 순수한 종교적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였다.⁷⁾

그러하여 베버는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개신교의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실체라고 생각했다.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 사회 체제에서 사람들은 이윤 추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윤추구를 위한 노동을 경멸하였고 오직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은 전통적 노동자들을 상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5) 위의 책, 43.

6) 위의 책, 46.

7) 한성진, “베버연구가 한국신학에 주는 적용 가능성 모색”, 『한국개혁신학』 24(2008), 173; Max Weber, Ibid, 35.

도입한 성과급제나 임금을 인하함으로써 큰 이윤을 얻으려는 방법들이 실패하자, 합리적 부기와 같은 경영방식의 합리화가 꽤하였다. 부기 방식의 합리화는 서구 자본주의의 합리적 기술 또는 기술의 합리성의 대표적인 실례였다. 자본주의는 이런 합리화를 통해 ‘노동의 합리적인 조직화’와 ‘합리적 산업조직’을 모두 만들어 내었다.⁸⁾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을 설명하기에 힘들었다. 그래서 베버가 제시한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었다. 베버는 근대자본주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윤리의 최고선, 즉 일체의 자연적 향락을 엄격히 배격하고 돈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행복주의나 쾌락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순수한 자기 목적으로 인식됨으로 개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에 대립하여 전적으로 초월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영리는 인생의 목적이지 결코 인간의 물질적인 생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⁹⁾

베버에 의하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에토스처럼 이윤추구 활동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이윤추구가 불가피한 악이거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기존의 자본주의처럼 도덕 이외의 것으로 보아 무제한의 본능과 충동에 따르도록 묵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는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 경영방식에 맞는 자본비용과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노동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¹⁰⁾ 그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생활이상에 기술과 경제영역의 합리화 과정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대표자들은

8) 박경수, “칼뱅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베버논지에 대한 재평가,” 『하나님의 경제 II』(서울: 킹덤북스, 2014) 127; Max Weber, Ibid, 21-22.

9)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61.

10) 위의 책, 68.

언제나 노동의 합리화를 통한 경제생활의 합리화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¹¹⁾ 베버는 기존의 ‘전통주의’와는 결별하여 이윤추구의 행위를 옹호하며, 그것을 ‘에토스’의 차원, 즉 하나의 경제윤리이자 직업윤리로 승화시킴으로써 정당화하고 윤리화하는 것이다. 이 윤리가 결국 합리적 근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었다.¹²⁾

2.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뱅의 예정론

베버는 자본주의의 현세적 금욕주의 토대를 루터의 직업소명설에서 보았다. 직업을 뜻하는 독일어 Beruf나 영어의 calling이라는 단어는 신에 의해 주어진 소명이라는 종교적 관념이 들어가 있다. 베버는 세속적 직업(Beruf)을 종교적 관념과 연결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고대나 중세시대 가톨릭이 우세한 민족들에게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개신교가 우세한 민족들에게서 잘 나타난다.¹³⁾ 그러므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개념은 종교개혁과 더불어 개신교가 출현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수도원적 삶은 현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기적 산물로, 신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반면에 세속 직업과 노동은 형제애의 외적인 표현이다.¹⁴⁾ 그는 세속적 직업과 노동 자체에

11) 위의 책, 89.

12) 위의 책, 89.

13)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93. 직업을 의미하는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의 Beruf라는 말은 성경 번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바로 루터가 신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쓰는 세속적 직업의 개념으로 Beruf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때부터 세속적인 의무의 수행이야말로 신에게서 축복 받을 유일한 것이고 그것만이 신의 뜻이며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단적으로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견해가 등장한다.

14)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95.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직업윤리를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루터의 직업윤리의 한계는 '순응'을 강조한데 있었다. 그는 직업 노동을 현실적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순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신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강조하였다.¹⁵⁾ 결국, 루터는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순응하고, 세속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직업윤리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베버는 칼뱅의 예정론과 금욕주의적 형태를 개신교의 적극적 직업윤리로 제시하였다.

베버는 금욕적인 개신교의 중요한 형태로 경건파, 감리파, 침례파, 칼뱅파 등 네 가지로 보았다.¹⁶⁾ 이 가운데 베버는 특별히 칼뱅주의의 예정론이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현세 금욕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¹⁷⁾ 칼뱅주의는 16~17세기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정치투쟁과 문화투쟁을 이끌었다.¹⁸⁾ 그렇기 때문에 칼뱅주의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베버의 이념형적 고찰에 가장 적합한 사례다. 칼뱅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교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선택, 곧 예정론이다. 이 예정론은 인간의 모든 삶과 일들,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으며, 신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 개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신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인간은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와 신으로부터 유기된 자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15) 위의 책, 101.

16) 위의 책, 113.

17) 박경수, 앞의 글, 109.

18)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17.

자 하는 모든 노력과 운명을 알려고 애쓰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예정론은 결국 신의 존재를 비인격적 폭군으로 변모시키며, 신과 인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된다. 또한 예정론은 신의 극단적 비인격성과 함께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의 영역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신과 신의 구원에 대한 불가지성을 확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정론은 무한한 신의 영역에 대한宿命론적 포기를 낳게 된다.¹⁹⁾

또한 인간은 신이 자신의 운명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심지어 설교자도, 성례도, 교회도 개인을 도와줄 수가 없다.²⁰⁾ 그러므로 칼뱅의 예정론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²¹⁾ 베버는 서구 근대인의 개인주의적 경향성은 이런 신으로부터의 고립감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내면적 고립이 곧 모든 육체적, 감정적 요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낳게 하였으며, 이는 모든 세속적 문화 일반을 적대시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²²⁾ 베버는 이렇게 고립감을 느끼는 칼뱅주의 신자들에게 칼뱅의 ‘예정론’은 다시금 직업노동에 헌신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진정시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예정론에 의하면, 현세는 신의 영광을 위해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다. 선택된 기독교인은 현세에서 최선을 다해 신의 계명을 수행하여 오로지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칼뱅의 예정론은 신이 현세에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는 사회적 차원의 일이다. 왜냐하면

19)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23.

20) 위의 책, 125.

21) 조나단 터너, 레오나드 비글리, 찰스 파워스, 조대엽 외 옮김, 『사회학이론의 형성』 (서울: 일신사, 2004), 256.

22)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28.

칼뱅에 의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그 형성이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현세에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은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이 되는 것이며, 현세 전체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업노동 역시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버는 칼뱅주의가 세속적인 직업 생활 속에서 신앙을 증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통해 종교적으로 생활하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금욕을 향한 적극적인 자극을 부여했다는 것이다.²⁴⁾

3.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금욕적으로 노동할 것이 의무로서 요구된다. 곧 소비적 향락에 반대하고 재화의 획득을 가로막던 전통주의로부터 벗어나 이윤추구를 정당화했다. 베버는 이러한 개신교의 금욕주의적 종교 관념과 경제적 일상생활의 원칙들 사이의 관계를 “육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 부유해지도록 노동해야 한다”는 박스터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²⁵⁾ 베버는 여기에서 “신을 위한 경우라면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게는 명령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윤추구에 대한 섭리적 해석이 가능해진다.²⁶⁾ 나아가 돈은 증식되어야 한다.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병들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이자 신의 영광을 해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행위는 당연히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나태의 죄악이며 형제애의 의무를 위

23) 위의 책, 130.

24) 위의 책, 146-147; 한성진, 앞의 글, 176.

25) 한성진, 앞의 글, 180.

26)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9.

반한 것으로 간주된다.²⁷⁾ 어쨌든 직업의 금욕적 의의를 강조한 것은 근대의 전문화된 직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했듯이, 이윤추구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근대 기업가의 활동을 정당화했다. 곧 영리활동은 근대 기업가의 ‘소명’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베버에 의하면, 근대 기업가의 영리활동이 그들의 ‘소명’인 것처럼, 근대 노동자들의 노동은 그들의 ‘소명’이다. 요컨대 종교적 금욕의 힘은 근대 기업가에게 건전하고 양심적이며 아주 근면한 노동자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중세시대에는 끊임없는 생활의 반성과 합리적이고 금욕적 태도는 수도원의 수사들에게만 강조되었던 계율이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이러한 금욕적 태도는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세속의 생활 속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처음에는 바울의 기독교적 원시공동체에서 기원하였다. 이어 사막의 교부들과 가톨릭 수도원들이 이 금욕주의를 정착시켰다. 루터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금욕주의 이상을 이어 받았고, 칼뱅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금욕주의적 이상을 세상의 직업을 비롯한 세속의 영역으로 끌어드렸다. 베버는 “모든 그리스도 교인이 일생동안 수도승이 되어야 한다”는 칼뱅의 주장을 ‘세속적인 종교적 귀족주의’로 명명하였고, 수도사와 신부와 같은 성직자만의 금욕을 강조한 가톨릭을 ‘탈세속적 혹은 정신적인 종교적 귀족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베버에 의하면, “근대적 자본주의 그리고 근대적 직업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²⁸⁾

27) 위의 책, 199.

28) 위의 책, 224.

III. 한국교회 재정 현황과 그 문제점

한국교회 재정현황에 대한 조사는 사실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은 교단을 초월한 개교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대다수 한국교회들이 재정현황을 흔쾌히 공개하지 않는 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는 조사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가장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셋째로 이 과제는 시간상 장기간의 연구를 요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연구소에서만이 아닌 교회현장의 방문을 요하는 실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 한국교회의 재정현황을 조사하여 일정한 관점(베버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비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다만 본 논고는 지난 1992년 노치준 교수가 한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표한 〈한국교회의 재정 구조 연구〉라는 논문에 발표된 한국교회 재정현황을 참고하여 이를 베버의 관점에서 비평해 보고자 한다. 노치준 교수의 논문이 약 20년 이상 지난 논문이고,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의 속도가 급변하는 지금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땅한 자료가 없어 이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노치준 교수의 논문에서 부족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부분은 필자가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한국교회 재정현황

노치준 교수는 〈한국교회의 재정 구조 연구〉에서 전국 246개 교회의 1992년도 재정 결산서를 수집 분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⁹⁾

29) 노치준, “한국교회 재정연구” 『기독교사상』 1992. 128-132에서 참조.

첫째 한국교회의 재정 규모는 성인 신도 100명 이하의 소형교회의 경우 2,901만원, 중소형 교회(성인 신도 101-300명)는 8,831만원, 중형교회(성인신도 301-700명)는 2억 3,191만원, 대형교회(성인신도 701-1,500명)는 4억 8,392만원, 초대형교회(성인 신도 1500명이상)는 14억 8,794만원이다. 한국교회 성인 신도 1인이 1년간 내는 헌금의 평균 액수는 50.9만원(1982년의 경우 13.5만원)으로 나오는데, 이 액수는 10년 전의 3.8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지역간 1인당 헌금 액수의 편차도 매우 커서 서울 69,6만원, 면단위 지역 36.6만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 신도를 약 500만 정도로 잡으면 한국교회의 1년간 총 재정 규모는 2조 5,500억 정도에 이른다. 필자는 이와같은 1992년도의 통계에 기초하여 2015년도 한국교회의 재정문제를 어렵잡아 산출하면 성인 성도 1인당 헌금액은 2015년도에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면 100만원-150만원 정도로 1992년도에 비해 약 2배정도 헌금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2015년도 현재 한국교회의 총 재정규모는 약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1992년도 한국교회의 헌금을 그 종류별로 비율을 계산하면 십일조 헌금 53.13%, 감사헌금 14.91%, 절기헌금 8.04%, 주일헌금 11.67%, 건축헌금 4.41%, 기타헌금 7.84%로 나타나 십일조의 헌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십일조의 비율이 40.9%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는 2015년도 현재 한국교회의 헌금 비율은 1992년도와 많은 차이를 보이리라 여겨진다. 우선 1997년 IMF체제 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교회건축비용의 증가로 아마 건축헌금의 비율이 다른 헌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한국교회의 재정 지출의 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교역자 급여

27.28%, 예배비 4.02%, 교육비 7.41%로 나타나 교회 안 직접 경비가 38.71%를 차지하고 있다. 선교비 5.34%, 상회비 2.75%로서 교회 밖 경비가 8.09%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관리비 12.7%, 운영비 13.33%, 건축비 13.16%, 기타 10.12%로 나타나 교회 안 간접경비가 전체 예산의 4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 밖 간접경비라 할 수 있는 사회 봉사비는 3.88%로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상과 같은 1992년 노치준 교수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교회는 1992년 교인 1인당 현금액이 평균 50.9만원에서 2015년에는 대략 100만원 정도로, 총 재정규모도 1992년 2조 5500억에서 2015년에는 5조원 정도로 한국사회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금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1992년에는 십일조 현금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7년 IMF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교회건축비용의 증가로 건축비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의 항목에서 교회 안의 간접비가 교회 밖에 지출하는 간접비보다 현저히 많음을 볼 수 있다.

2. 한국교회 재정현황의 문제점

1992년도 한국교회의 재정 지출 구조는 교회의 내적 성숙을 위하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2015년도 현재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교회 간접비 부분에서 과도한 교회 건축비용의 상승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지나친 급여수령과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교회 건축비용 상승과 부동산 투기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번영하는 건설 붐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교회들은 기존의 건물을 팔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아예 신도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교회들은 바닷가나 산속에 수양관을 짓거나 일부는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을 설립하였다.³⁰⁾ 이러한 교회의 신축과 교회개척, 그리고 각종 교회기관의 건립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어온 한국경제와 교회의 성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 성장을 지속해 오던 한국교회는 19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교회 성장 정체와 교인 수의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보수진영의 민족복음화 운동과 진보진영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1897년 6.29선언 후 철저적 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 확립되고,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주의에 매몰되면서 한국사회 안에서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면서 교인수의 감소로 이어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심화되어갔는데, 일부 대형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재정 규모의 축소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1997년 IMF 이후 한국사회변화와 그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교회성장주의에 매몰되어 교회건축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상황과는 달리 한국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와

30)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4(2012), 56.

꾸준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가 내놓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그 의도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에 걸친 신도시 개발붐은 토지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 일으켰고, 일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교회건물 임대와 건축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는 교회 재정 수입 현황에 있어서 교인들의 건축현금 비율 상승과 재정 지출에 있어서 건물임대 혹은 토지 매입과 교회건축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소형 교회들은 교회 건물 임대 혹은 교회건축 비용에 교회재정을 거의 대부분을 투입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중대형교회들 또한 은행대출을 통한 교회건축 등으로 재정지출구조의 심각한 왜곡과 악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토지와 건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차익의 실현은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을 유발하였고, 교회 또한 재정의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회 건물 임대와 건축비용 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은 한국교회의 건전한 재정 구조를 악화 시키고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재정의 올바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는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경제자유화와 개방화, 그리고 금융자유화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로 귀결되었고, 한국경제는 IMF의 개혁 프로그램의 요구로 급격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재편되어 갔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이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금융과 산업저본의 재벌집중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노동시장 유연화로 야기된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³¹⁾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교회들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교인 수, 교회재정, 유형적인 인프라와 무형적인 인프라에 있어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³²⁾ 특히 교인수의 양극화는 교회재정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자립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교역자 사례비에 있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노치준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역자들의 사례비는 1992년 기준으로 교회재정의 2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교회전체예산에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교역자들의 사례비가 교회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본격화 한 1997년 IMF 이후 목회자의 사례비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교회 교역자들의 연봉은 전체교역자의 약 80% 정도가 25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여 교역자들이 한국근로자의 평균 연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의 중소형 교회, 농어촌교회 등 미자립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생존의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³³⁾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 대다수 교역자들과는 달리 대형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은 지나친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MBC <뉴스 후> 프

31) 김명용,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 II』 (서울: 킹덤북스, 2014) 참조

32) 김명배, 앞의 글, 54.

33) 위의 글, 55.

로그래에 의하면 한 달 사례비가 3천만원인을 넘는 목회자, 외제차를 몰고 30억 원을 넘는 고급 주택에 사는 목회자들에 관한 보도가 방송되었다. 물론 이러한 목회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대형교회 일부 목회자들은 대다수 목회자들의 사례비의 몇 배를 받으며 풍족히 생활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회담임목사의 사례비의 양극화 현상은 중대형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담임목사만 우대해 원로목사제도를 두고 은퇴 후에 퇴직금, 승용차, 주택까지 지원하지만 부교역자는 어느 때고 고용과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한 신분으로 묶어 두고 있다. 담임목사에 쓰이는 일부를 떼어 부교역자들의 안정된 자립을 넉넉히 지원할 수도 있지만 저임금 보조역할로 떠밀어 놓고 있다.³⁴⁾

이러한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회재정 수입과 지출 등 운영상의 불투명성이 함께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회 재정 지출에 있어서 목회자와 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비합리성, 자의성 등이 게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성과 자의성은 교회 재정지출 구조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가져오고, 교회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지나친 사례비와 공개를 꺼리는 교회재정의 불투명성은 교회의 분쟁은 물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오고 있다.

IV. 베버의 사상에서 본 한국교회 재정문제 해결의 윤리적 방안

앞 장에서 서술한 한국교회 재정문제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34) 위의 글, 55.

밖에서도 비판의 대상의 된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교회의 재정불투명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종교인들의 과세를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재정문제에 있어서 많은 불합리성과 불투명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한국교회의 재정불투명과 불합리문제의 해결책과 그 극복의 방안을 베버의 사상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즉, 베버의 합리적인 경영방식에 맞는 자본이용과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노동의 조직화, 그리고 금욕주의적 자본주의 정신이 현재 재정불투명과 불합리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결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베버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대화는 곧 합리화이며 근대 자본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합리화의 결과물이라 말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성과급제도, 임금인하로 통한 이윤추구, 합리적 부기와 같은 경영방식의 합리화 등은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말한다. 그러나 베버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며,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적 직업윤리가 결합하여, 결국 합리적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칼뱅주의의 예정론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현세 금욕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즉 예정론은 신과의 고립감에 서로 잡혀 있던 중세 서구인들에게 직업노동에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진정시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칼뱅의 예정론은 일반신도들에게 세속적 직업노동에 충실하도록 인도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베버는 금욕적 개신교의 종교적 관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을 위한 부의 추구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부의 추구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더 적절하게 명령되며, 이윤추구에 대

한 섭리적 해석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베버는 개신교 윤리가 근대기업가들로 하여금 영리활동을 ‘소명’으로 보도록 하였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역시 노동을 ‘소명’으로 보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는 개신교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 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 글은 이러한 베버의 사상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과 그 극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 받는다고 본다.

첫째로 교회재정 운영의 합리성 추구이다. 베버에게 있어 근대화는 곧 합리화였다. 베버는 근대 세계는 더 이상 신들의 세계가 아니었다. 인간은 이전 시대에 카르스마적 영웅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처럼 보이던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³⁵⁾ 따라서 그에게 근대 자본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근대화 혹은 합리화 과정의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근대화는 서구 문화에서만 발생한 특수하고도 독특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베버는 근대화, 곧 합리화를 서구만의 특수한 현상이고, 이로부터 비롯된 자본주의 역시 서구만의 특유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합리화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기존의 여타 자본주의와 구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베버는 자본주의를 합리적 자본주의와 비합리적 자본주의로 구분하며 전자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합리적 자본주의는 물질적 욕망의 추구를 비난하는 중세 전통주의와는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을 엄격한 노동윤리와 결합시켜 자본의 축적을 정당화하고 있다.³⁶⁾

그런데 베버는 합리적 자본주의 모형을 탐색하면서, ‘이념형’ 자본주의와 ‘특수형’ 자본주의의 차이를 이용하였다.³⁷⁾ 그러나 이러한 베버의 합리

35) 루이스 에이 코저, 신용하/박용규 옮김, 『사회사상사』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2006), 285.

36) 김미경, “자본주의 진화의 다양성:신자유주의에 관한 신화의 오류,” 『국제정치논총』 52-2(2012), 325.

37) 강휘원, “막스 베버의 서구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분석과 현대적 적용논의,” 『현상과

적 자본주의 설명모형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된 글로벌 자본주의의 환경 속에서 제국주의적 국가, 제 3세계 국가들이나 신흥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베버의 기독교적 자본주의는 돈이 숭배되고 계급적 착취와 위선적 자선, 이웃사랑과 사회적 존경까지도 돈으로 매매될 수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와는 양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베버 사상의 적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베버의 설명모형은 새로운 합리적 자본주의 모색에서 합리적 자본주의 성립과 관련된 본질적 문제, 즉 경제의 합리적 행위와 산업기술, 합리적 법률과 관료조직, 노동의 전문화 등의 자본주의 요건 성립 기반을 분석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제도나 체제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즘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경주하고 있다. 사기업 뿐 만 아니라, 공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경영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기업들은 베버가 언급한 합리적 계산을 위해 발달된 회계기술과 대차대조표 작성, 합리적 법률 및 기술에 근거하여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통한 기업의 운영 등은 생존의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러 기업의 경영방식과 달리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대형교회는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한 재정 운영으로, 상당수 중소교회는 개교회의 특수성에 따른 재정운영 등으로 교회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해 내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인식』 38-3(2014), 118. ‘이념형’이란 초역사적 이상적인 순수한 형태의 개념으로 ‘이념형’ 자본주의 경제행위는 화폐가치로 계산할 수 있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를 말한다. 반면 ‘특수형’ 자본주의는 경제행위의 합리적 행위, 즉 합리적 계산을 위해 발달된 회계기술과 대차대조표 작성, 합리적 법률 및 기술에 근거하여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통한 기업의 운영 등에 기반 한 합리적 자본주의 방식이다; 김광기, “막스 베버와 알프레드 슈츠: ‘이념형’과 ‘전형’의 비교분석,”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38-3(2014), 62-65; Weber, *Gesammelt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ubingen), 1973. 190-92;

38) 강휘원, 앞의 글, 122.

보니 언론에 의해 일부 교회의 재정불투명 문제들이 보도되어 시민사회 단체들에 의해 한국교회 전체가 현금운영이 불투명한 단체로 매도되고, 교회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도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경영과 교회재정의 합리화를 시도해야 한다. 과거처럼 은혜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도태되기 쉽다. 한국교회들 가운데 과거에 지역을 대표하던 교회가 쇠락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합리적 교회운동을 등한시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보면, 개교회 목회자들이 합리적 경영방식에 맞는 자본비용과 합리적 노동의 조직화를 통한 교회의 성장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교회 재정이 편향된 방향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교회건축이나 선교사업은 교회는 물론 교인들에게 지나친 짐이 되고, 종종 교회와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는 등의 지나친 모험적인 교회운동을 지양하고, 교회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이 재고 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관리비, 운영비, 건축비, 교육비 등의 교회 내 간접비를 줄여서 선교비, 사회봉사비 등 교회 밖 간접비로 얼마나 전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로 교회재정운영의 금욕성 추구이다. 베버에 의하면, 개신교에서 강조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자신의 천직, 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쾌락이나 향락을 희생하면서 엄격한 규율과 조직 아래서 자기 자신의 직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금욕주의적 직업윤리'였다. 다시 말해, 개신교

에게는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직업 의무’가 부과 되었다.³⁹⁾ 왜냐하면 “직업의무의 행사로서의 부(富)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 때, 개인적 허용 또는 자유로운 자기실현, 무제한한 개성의 발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신교가 벌어들인 부의 생산적 사용만이 촉진될 뿐, 소비적 사용은 억제된다. 개신교주의는 그때껏 어느 사회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던 독특하고도 강력한 직업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베버는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칼뱅주의의 예정론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현세 금욕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베버는 “청교도적 직업관과 청교도주의가 요구한 금욕주의적 생활양식”은 자본주의 발전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금욕주의는 “현재적 삶과 이 삶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무절제하게 향유하는 것”에 전력으로 반대하고 싸웠다. 신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쾌락추구나 향락을 얻기 위해 재화를 지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즉 “목적으로서의 부의 추구는 배척”하였고, 대신 “직업노동의 열매로서의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청교도적 직업관”과 극도의 “금욕적 절약 강박”은 근대적 자본주의 발달의 기초로서의 “자본형성”으로 이어졌다.⁴⁰⁾

그러나 이렇게 베버가 주장한 근대 자본주의 발달의 기초가 된 청교도적 청빈, 금욕 등 개신교의 덕목들은 현재 한국교회들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교회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양극화 현상의 영향과, 교회 내적으로는 탐욕적인 교회확장과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있다. 베버가 말한 신의 영광이 아닌,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영광과 편리와 쾌락을 위한 교회건축과 부동산 매입이 자행되고 있다.

39)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62.

40) 김충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기복신앙”, 『현상과 인식』 38-3(2014), 139.

오늘날 한국교회들 가운데 수천 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매머드 급 교회들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회들의 교회성장주의와 결합된 교회 신축과 건물의 대형화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의 지출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을 못하도록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초기 개신교 신자들이 “현재적 삶과 이 삶이 제공하는 모든 쾌락을 무절제하게 향유하는 것”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금욕주의적 신앙은 찾아 볼 수 없고, 편리하고 편안한 쾌락적 신앙 생활을 위한 교회건축이 횡행하고 있다. 노치준 교수의 통계에서 보듯이 교회재정이 사회봉사비 등의 지출은 거의 없고, 교회의 내적인 비용, 즉 운영비, 건축비 등으로 소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사례금을 받고,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비용을 교회에 청구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교회재정의 자의적 유용과 사적 영역에서의 사용은 절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원로 목사들의 지나친 전별금의 요구도 들려온다.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은 베버가 말하는 개신교의 금욕주의적 윤리가 아니다.

베버에 의하면, 칼뱅주의와 청교도주의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의 금욕주의는 노동과 영리활동을 소명으로 파악하였고, 엄격한 금욕적 생활양식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졌고,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초기에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베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교회 성장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에 근거한 “천민자본주의의 에토스”가 강한 영향

을 발휘하고 있다.⁴¹⁾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개신교 금욕주의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회 건축에 있어서 대형화를 지양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예배드리는 방법 또한 베버가 말하는 교회 운영의 금욕성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 목회자들을 포함한 교회지도자들이 교회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사적영역에서의 사용을 절제하고, 개신교적 금욕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 글은 베버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베버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극복의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는 사회의 전반적인 합리화의 결과물이라 말하였다. 그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성과급제도, 임금인하로 통한 이윤추구, 합리적 부기와 같은 경영 방식의 합리화 등은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말한다. 그러나 베버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은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며, 개신교의 금욕주의적 직업윤리가 결합하여, 결국 합리적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신교 교파들 가운데 칼뱅주의의 예정론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현세 금욕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개신교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 한 것이라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베버의 사상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과 그 극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 받는다고 본다. 첫째 한국교회가 교회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성장하였다. 이 시기 한국

41) 김충환, 앞의 글, 144.

교회는 복음화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서면서 사회적 신뢰를 받아 교세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사회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재정운영의 비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대형교회의 재정불투명 문제가 지적되었다.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종교인 과세의 문제가 입법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한국교회는 베버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주장하는 경영방식의 합리화, 곧 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가 교회운영에 있어서 금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버의 주장에 의하면 루터의 직업소명론과 칼뱅의 예정론에 의한 금욕주의가 근대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는 개신교의 금욕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한국교회는 최근 심각한 교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 우후죽순처럼 개척되던 교회들과 소형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있으며, 일부 중대형교회들은 지나친 교회성장주의와 매머드급 교회건축으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상당수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건축에 몰두하여 한국교회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인 청빈과 금욕이라는 개신교의 덕목을 잃어버리고 mammon과 천민자본주의 정신 에토스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그 결과 심각한 교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베버가 말한 청교도적 금욕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야 한다. 교회 재정의 합리화와 절제 있는 사용, 특히 재정의 금욕적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경, “자본주의진화의다양성: 신자유주의에 관한 신화의 오류,” 『국제정치논총』, 52-2(2012), 311-336.
- 김광기, “막스 베버와 알프레드 슈츠: ‘이념형’과 ‘전형’의 비교분석,” 『현상과 인식』, 38-3(2014), 61-87.
- 김명용,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 II』 (서울: 킹덤북스, 2014).
-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4(2012), 43-68.
- 김충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기복신앙,” 『현상과 인식』 38-3(2014), 129-147.
- 노치준, “한국교회 재정 구조 연구” 『기독교사상』 1994.
- 박경수, “칼뱅은 자본주의의 창시자인가?: 베버 논지에 대한 재평가,” 『하나님의 경제 II』 (서울: 킹덤북스, 2014).
- 편영수, “프란츠 카프카와 막스 베버의 ‘관료제의 지배’: 카프카의 장편소설 〈성(城)〉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8-3(2014), 89-102.
- 한성진, “베버연구가 한국신학에 주는 적용 가능성 모색,” 『한국개혁신학』 24 (2008), 164-196.
- 루이스. 에이 코저, 『사회사상사』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고려원, 1990).
- 박성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사회비평』 19 (1992).
- 조나단 터너, 레오나드 비글리, 찰스 파월스, 『사회학이론의 형성』 (서울: 일신사, 2004).
- 기독교사상, “한국교회의 헌금과 재정,” 『기독교사상』 (1983, 2).
-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 Max Weber, *Gesammelt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Tubingen), 1973.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 재정문제와 그 윤리적 방안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4>) | 김명배 127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의 지나친 교회성장주의는 수많은 개척교회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심각한 재정적, 수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아무런 대책 없이 목회현장에 내몰린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개척으로 나아가고, 자립에 실패한 교회들이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안에 자성과 갱신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위기를 바로 진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다수의 교회와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성장주의와 교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점들의 해결책과 그 극복방안을 베버의 〈개신교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사상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의 재정문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교회의 재정문제가 베버가 드러낸 현세적 금융주의라는 자본주의 정신에 어떻게 대립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한다. 마지막으로 베버의 합리적인 경영 방식에 맞는 자본이용과 금융주의적 자본주의정신이 현재 한국교회의 재정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사회, 윤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막스 베버, 개신교, 자본주의, 한국교회, 재정불투명, 금융주의
